

Economy Outlook

2022.4.14

Economist

임동민

3771_9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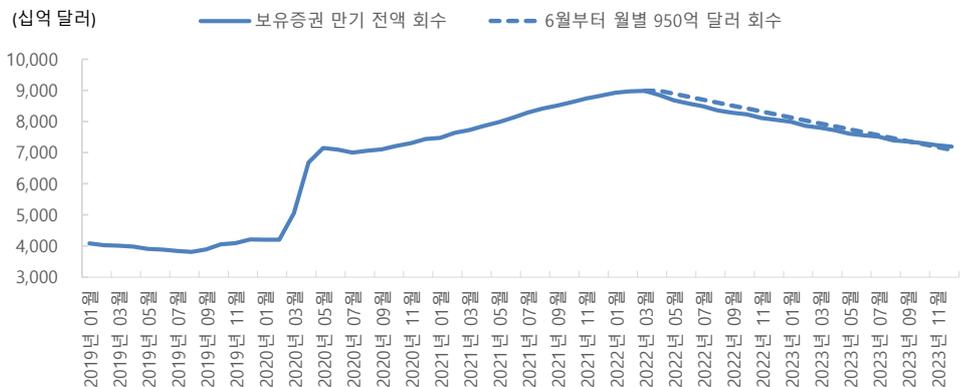
dmlim2337@iprovest.com

미 연준 자산축소에 대한 선제적 안내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향후 금리인상과 자산축소에 대한 선제적 안내를 비교적 분명하게 밝힘.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고용시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것이며, 올해 말에 중립적인 정책 스탠스로 신속히 움직이기 위해 중립금리 수준으로 추정되는 2.4%까지 인상하는 방향. 대차대조표에 대한 결정은 빠르면 5월이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6월부터 자산축소가 축소될 전망. 그러나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어떤 전망이든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음을 상기. 즉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와 경기둔화 가속 및 고용시장이 부진에 빠질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

3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대로, 월별 최대 950억 달러(국채 600억+MBS 350억)로 자산을 축소한다면, 대체로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는 연준의 보유증권 만기 회수보다는 적은 규모, 그 이후는 보다 큰 규모로 유동성을 회수하게 됨. 6월부터 월 950억 달러씩 자산을 축소하는 것은 2018~2019년 월평균 350억 달러의 자산축소보다는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며, 2023년 하반기부터는 소폭의 자산매각도 실시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준이 분명. 미국 주택시장 및 가계의 재무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MBS 회수가 일으킬 부작용은 제한적.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규 국채발행을 통해 부채를 상환 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향후 자산축소 확정에 있어 연방정부의 자금조달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

미 연준의 보유증권 만기 회수 및 월 최대 950억 달러 회수 시 자산축소 시나리오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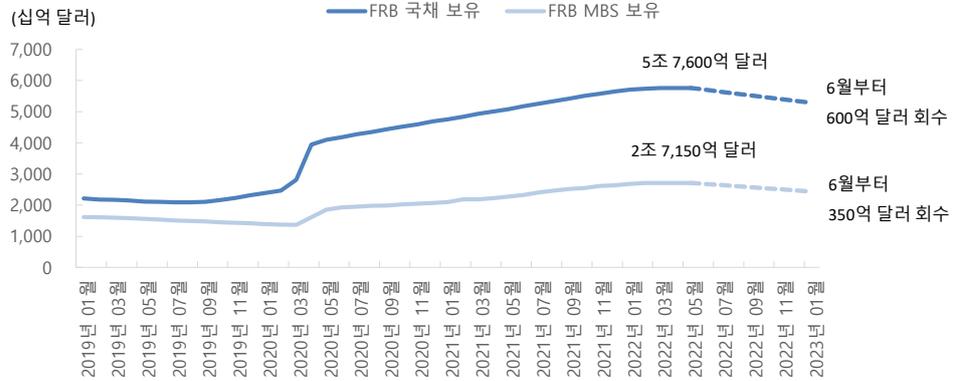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서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중독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서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논문 등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먼저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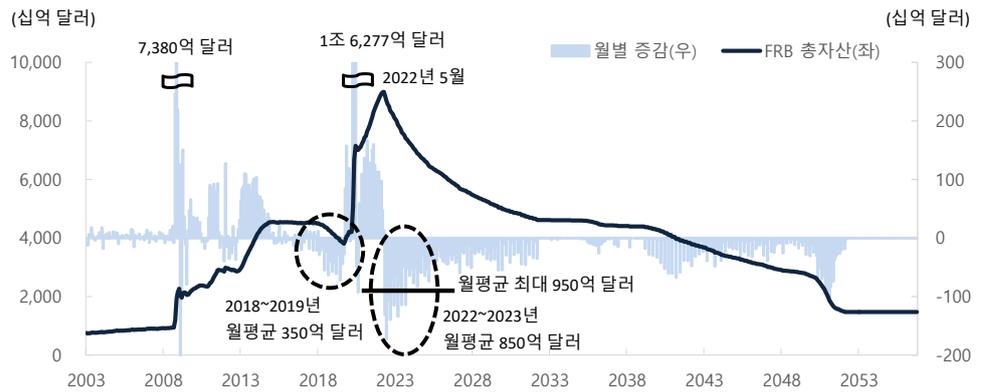
Focus Chart

[도표 1] 2022년 6월부터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회수 시 연준 국채 및 MBS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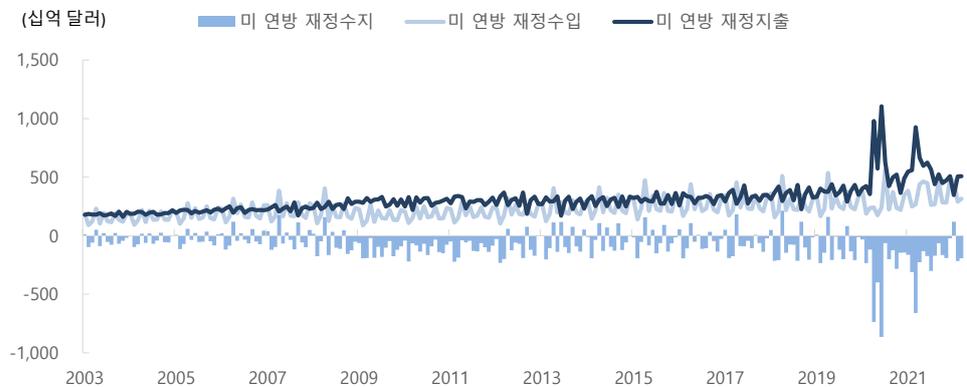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2022년 6월부터 연준 보유증권 만기 회수 시 총자산 축소 추세 : 2022~2023년 만기 분포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미 연방정부 재정수입, 재정지출 및 재정수지 추이 : 재정적자 상태에서 국채상환에 어려움 분명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